

6 칼빈과 이웃 :

그리스도인과 교회 사회복지 실천 제언

손병덕 교수 / 종신대학교, 사회복지학



1.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 기독교의 선교역사와 복음전파 대상이 되며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이 함께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에 600여 개의 각종 학교를 설립하는 등 개화 초기 근대 식 학교, 병원, 고아원,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을 기독교계가 설립·운영할 정도로¹⁾ 복음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의 실천과 함께 증거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고아와 미망인 등 요보호자들을 위한 시설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²⁾ 이를 기

1) 류상열, 「사회복지역사」(서울 : 학지사, 2003) ; 김영재, 「한국교회사」(서울 : 개혁신학의 신행협회, 1992) ; Clark, A.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Seoul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2)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서울 : 인간과 복지, 2000), p. 432.

반으로 교회는 민간사회복지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지속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웃사랑 실천과 전문사회복지 실천을 향한 기독교의 관심은 성장을 계속하여 1980년대 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조사될 정도³⁾였으나 2000년에 발행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⁴⁾에 따르면 전문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기독교전문인력 비율은 전체 7,823명 중 43.5%에 해당하는 3,409명이 기독교 신자로 나타나 사회복지 분야에 현저한 하락을 예고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4,048개소(이용시설 1,937개, 생활시설 2,111개) 중 기독교 시설은 893개소(22%)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 기여하는 기독교의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 인권의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미신고 시설⁵⁾이 기독교의 경우 다른 종교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504개소(천주교 179개소, 불교 39개소, 원불교 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음이 제시하는 섬김과 봉사의 참된 모습이 일부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 외종교
	계	1,891	893	450	402	75	71
생활 시설	소계	1,023	555	297	101	25	45
	신고시설	368	129	128	64	23	24
	미신고시설	655	426	169	37	2	21

3) Ibid.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2000), p. 16.

5)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에 따라 2006년에 578개소를 남기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지도가 세심하게 요청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참고자료,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http://www.129.go.kr/?m=20&s=2010&n=385>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추출(2006. 5. 23.)).

이용 시설	소계	868	338	153	301	50	26
	신고시설	776	259	143	299	50	25
	미신고시설	92	79	10	2	-	1

〈표 1〉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2004)⁶⁾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계는 선교 초기부터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실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 전반의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와 예산의 증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계의 관심과 노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 교회가 위치하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하여 거둬낸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성경의 가르침⁷⁾은 지역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는 기독교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성과 각성을 촉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약화된 원인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의 근거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성찰의 부족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미약했다고 주장한다. 즉, 개혁주의 전통에서 거둬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려는 회개 속에서 살아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열망은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의 고통을

6) 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 125. 전체 4,048개소 중 1,891개소가 종교계 시설로 분류되었다. 기독교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를 포함하였다. 불교에는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을 포함하였다.

7)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 : 37-40).

돌아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다고 본다.

특별히,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끊임없이 조명하며,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사랑의 실천대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함께하심이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시작하였으므로 그 과정과 결과에서도 하나님이 구주 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웃의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보다 공고히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 봉사영역에서 실천능력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empowerment가 필요하듯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영적 empowerment를 체험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혁주의적 성경관을 확립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이웃사랑과 전문사회복지 영역의 실천의 방향을 성찰해 보려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웃사랑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이웃사랑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칼빈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을 근거로 교회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다.

2. 이웃사랑에 대한 칼빈의 이해

1)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인(고후 5:18)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 된 본연의 모습⁸⁾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시 때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⁹⁾ 할 거룩한 소명 속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체험한 성도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화목하게 하신 삶을 구현하려는 열정과 헌신이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자의 걸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복음을 통

8)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아담의 원죄로부터(칼빈,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5장 8절) 말미암는 모든 육신의 생가(롬 8:6-7), 그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모습(엡 4:22),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양심과 본성적인 악의 발동(시 14:3; 롬 3:12) 등 하나님 법과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Ibid., 제2권 3장 1-3절, pp. 351-356).

9) Ibid., 제3권 6장 3절, pp. 198-199. 칼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을 때 신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행위가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엡 4:22)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배우는 사람¹⁰⁾을 지칭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시므로(히 4:12)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심으셔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므로 참된 신자의 삶에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르침이 드러나게¹¹⁾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구속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으로 참되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요 4:23)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 전체를 그대로 받아 순종하며 살려는 바람을 가지고 자기본위로 살려는 의지를 끊임없이 제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이루려하는 의지 가운데 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신자가 가지는 경외감,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련함¹²⁾,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

10) Ibid., 제6장 4절, p. 200.

11) Ibid., 칼빈은 보다 강한 어조로 “진정 우리 주(主) 되신 하나님의 귀한 제자라는 사실을 몸소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실로 “복음은 영혼 속에 자리 잡아서…… 사람의 인격 전체에 철학자들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하였다(p. 201). 그러나 칼빈은 동시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실천하는 사람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목표로 하고, 그 모습을 이루려고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2)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본질적으로 서

인의 실존적 삶의 양태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키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현재는 비록 불완전해 보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추구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벗는 날,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완전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의식의 경향이 있어서 의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결도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크나큰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인간의 부패성의 한계 안에만 두는 한,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인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완전 그 자체인 것으로 보이던 우리 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다. ……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Ibid., 제1권 제1장, 2-3절, pp. 42-44).

따라 살려고 할 때 칼빈은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主) 되심을 인정하는 것¹³⁾이라고 제시하였다. 그것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롬 12:2),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롬 12:1)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간절한 바람 속에 살아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과 같이 자기 자신의 뜻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주장한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구원의 도리를 붙잡지 아니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이 자기 주장하는 형태의 삶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순종하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¹⁴⁾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첫 관문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좇아 살려고

13) Ibid., 제3권 7장, 1절, p. 203. 칼빈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 아래 있어 그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상태는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되었으므로(롬 5:17)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자기 자신과 죄스런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회복되는 구체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Ibid., 제2권 1장, p. 303).

14) Ibid., 제3권 7장 1절, p. 204.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이를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도 이성을 의지하여서는 거룩과 의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받은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항상 매순간마다 지속적인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필수적이라고 이해하였다(Ibid., 제2권 2장 25절, pp. 344-345).

부단히 애쓰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갈 2:20)이며,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실천하며, 자신의 소욕을 뒤로하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안에서 이웃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속에서 이웃은 하나님과 화목한 영적 경험이 실천되는 실제 적용의 대상이 되고, 장이 된다. 이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삶으로 보여지는 잠재적 화목의 대상이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대면하는 시험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총을 체험하였다고 하지만, 죄의 오염으로 인한 영향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축적된 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도록 여전히 시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장이 되는 사회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이웃도 죄 아래 있고, 죄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존재한다.¹⁵⁾ 이 모든 것은 하

15) 칼빈은 로마서 12:10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전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거론하며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천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옛 사람의 영향이 남아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웃보다 남을 여전히 우월하게 존치하게 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그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별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을

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본위의 삶을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내외적 행위로 드러난다.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 삶의 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천적 방안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즉, 자신이 죄 중에 있었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러한 영적 각성과 체험을 기반으로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웃의 유익을 구함(고전 13:4-5)”으로 이웃, 즉 사회 속에서 내게 경험된 하나님과의 화목이 실제로 구현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본성적으로는 자신의 본질적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며 깨달아진 말씀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웃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 자신과 교회의 덕이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물질적 소유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믿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내놓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덕이 선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치관의 형성이 가능해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겸비함을 보이며 실제로 노력과 물질을 나누는 삶을 구현할 때 실상은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는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조명 받는 방법 외에 달리 길이 없는 것이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는 능력이 생겨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보는 능력을 실현하게 된다(Ibid., 제3권 7장 4절, pp. 208-209). 칼빈은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다시금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경험을 하나님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베푸신 존귀한 은혜라고 하면서 그런 존귀한 경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까지 하였다.

자신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이 경험되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이웃사랑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구속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면서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성취도상에 있는 까닭에,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인간적 제 양상들로 인해 자신과 교회에 덕스럽지 않을 상황을 상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은 두 가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웃을 섬기는 자세¹⁶⁾이고, 두 번째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복,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라¹⁷⁾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역으로서의 이웃사랑의 실천은 대상의 내외적 환경을 기초하여 문제를 판단한다면, 이웃사랑은 참된 의미에

16) Ibid., 제3권 7장 6-7절, pp. 211-213. 칼빈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천대상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 거룩과 의로우심을 거듭남의 경험을 한 이후에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새로운 조망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의 수단이나, 목적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변화 받은 심령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하여 가난하고 절망적인 이웃을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또 대상의 형편에 기초하여 실제로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나 나의 판단에 따라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형편도 아니라고 미리 예단할 수도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견지에서 비록 실천대상이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무한한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17) Ibid., 제3권 7장 8-9절, pp. 213-216. 칼빈은 앞서 밝힌 이웃사랑의 실천대상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강조하는 연장선에서 인간적 보상을 요청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 만큼 그 과정이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서 실천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섬기지 말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복지 정책적 부조의 기초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상이 물질적인 보조를 받아야 할 만큼 정말 가난한지 살펴본 후,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인간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재화를 보조해 주는 것¹⁸⁾에 한한다. 즉, 일반적인 사회는 이웃사랑의 실천대상에게 가난의 심각한 상태를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자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인색하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주님이 절망적인 인간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속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의심의 도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마음에서 우리는 심정으로 가난한 이웃을 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을 의미한다. 그 이웃사랑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난한 이웃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심리적 도움과 물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데 까지 나아간다.

두 번째, 칼빈이 말하는 이웃을 섬기는 자세는 세상이 주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남을 돕는 일을 하지만 이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이혼, 아동·노인유기, 가출, 자살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증가되고, 복지의 기반단위인 가정을 해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1999년 8월에 제정되었다. 그 기본원칙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Comprehensiveness),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Universalism),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의 보장”(김미곤,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연구」 제5호<한국도시연구소, 1999>, p. 5)이다. 기본원칙에서 함의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 근거가 있고, 개별가구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산조사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견된다.

웃을 위해 일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며,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도인조차도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칼빈은 파악하였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서 이웃사랑의 실천대상이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이르고, 자신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범사에 기쁨과 유익이 찾아들기를 하나님 앞에 고대하며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지역사회의 문제, 이웃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안전망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위시한 많은 NGO 단체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이웃사랑실천을 실행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¹⁹⁾ 나머지

19)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4,048개 사회복지시설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는 1,891개(기독교 893개, 천주교 450개, 불교 402개, 원불교 75개)이고 총 세입 규모는 5,565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천주교가 2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기독교가 170억 원, 불교가 97억 원, 원불교가 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교계의 지원금은 천주교의 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불교에 비하여도 적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종교계의 이러한 시설지원금의 대부분(68.2%)이 시설운영비에 쓰이고, 복지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27.8%만이 지출되고 있어 매우 기형적인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 165-175). 이는 전체 세입규모에 비하여 종교계의 지원금이 적기도 하거나와 사회복지 실천 대상인 이웃을 위해 정작 쓰여져야 할 재정보다 시설보장에 두 배 이상 지출되어 이웃의 문제해결과 해소를 위한 사업에는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3월 27일 KBS “추적 60분”에서는 정부보조금을 더 타 내기 위해 무료급식인원과 지역아동센터 대상인원을 매일 부풀려 해당관청에 보고하여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관들의 문제점들이 집중 보도되었다(http://www.kbs.co.kr/1tv/sisa/chu60/vod/1577256_879.html에서 추출).

매우 적은 부분을 법인전입금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그나마도 적게 기여하려는 시도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돕는 섬김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한편, 그 섬김의 장을 인권 사각지대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칼빈은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3. 교회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제언

1)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그리스도인, 이웃사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²⁰⁾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²¹⁾하는 인생목적을 따라 살므로 성도와 이웃에 대하여도 자신의 신앙고백을 따라 예배와 성도 상호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여 어려운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도우며,²²⁾ 일반 국가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신성한 직무를 잘 지켜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²³⁾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칼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의 형상

20)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p. 23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정의하였다.

21) Ibid., p. 36.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요리문답 문 1. 롬 11:36; 고전 10:31; 시 73:24-28; 요 17:21-23.

22) Ibid., p. 230.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26장 2절.

23) Ibid., p. 257. “벨직신앙고백” 제36장.

을 심어 놓으심²⁴⁾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후 5:18).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움으로 구속의 은총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남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참된 마음으로 소망하며 자신의 전체의 삶에서 구현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²⁵⁾” 인격 전체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깊이 경험하여 실제의 생활에서도 자신에게 체험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칼빈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총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경험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거듭난 삶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게 하신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자

24)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6장 3절, pp. 198-199. 칼빈은 세상의 도덕과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최상의 것이라도 결국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르치나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주가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좇아 타락된 본성을 뒤로하고 모든 모범을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험을 체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5) Ibid., pp. 198-199. 제3권 6장 3절 “그리스도인의 삶”.

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구현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쓸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마 22 : 37-39)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²⁶⁾을 살려 하는 부르심의 소명 속에 산다.

2) 이웃사랑의 실천준칙

칼빈은 이웃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이웃사랑의 실천 대상을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하였다. 최근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 실천대상을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과 인간으로서의 잠재적 역량을 기초하여 누릴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수혜적 입장에서 사회복지 실천대상은 수혜자로서의 소극적 권리밖에 누릴 수 없으나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적 접근²⁷⁾은 인간의 차별 없는 평등에 초점이

26)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항상 우선적이고 전제조건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 경배함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7) 1948년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한 이후 1979년 12월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고(대한민국 적용일 1985. 1. 26.)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대한민국적용 1991년)이 조인되었고(김인숙·오선영·송수진·정필현, 「아동권리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회의 결과문서」 <보건복지부·Save The Children, 2004>), 2006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보면 “1) 장애인,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등에 관한 정의 2)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조항의 존치 3)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법적 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4)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등 인권보호·신장 5)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6)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 보장 7)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관련”(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 통과와 장애인 인권.” 웹진 「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2007. 3. 4.>,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11869&article_idx=11990&sub_category=AA&pagenum=2에서 추출) 조문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인 차별금지 및 평등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맞추어진다. 차별철폐와 평등을 강조하는 인권적 접근에 기초하는 법적²⁸⁾, 실천적 접근이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만약 이러한 정책적 기초가 지켜진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더 진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칼빈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을 기초한 평등적 입장을 넘어서 이웃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견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롬 12 : 10).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식으로도 이미 갖추어진 사회적 지위와 형편,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아니면 최소한 지금 봉사의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웃을 볼 때 언제든지 그런 이웃을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자세를 ‘자신보다 이웃을 언제나 나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을 견지하라는 것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도중에 비로소 지속될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기독교계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학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해된다. 시설에서 보호 받는 경우 그 보호의 대상은 많은 경우에 인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에게 가하여지는 차별이나 학대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

28) 차별폐지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한 예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체의 경우 상시 노동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수에 월 50만 원(의무고용률 1%에 못 미칠 경우 75만 원)을 곱한 합계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2% 이상 기준을 넘어서실 경우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게 되는데,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률도 2008년에 1.76%로 지켜지지 않았고 삼성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하여 82억 원의 부담금을, LG는 32억 원을 부담금을 내고 있어 여전히 고용차별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않은 형편에 있다(Ablenews,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2008. 10. 14.>,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081004112143390000>에서 추출).

진다. 따라서 많은 봉사나 노력에 의하여도 자신이 어떠한 긍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여자는 오랜 시간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비스의 대상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칼빈은 현실적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현상과 상황을 극복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치관,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충만한 관점 속에서 섬김의 도리를 지속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도출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모든 차별과 학대의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이웃은 자신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고, 섬김을 받은 이웃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3)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으로 완성된다.²⁹⁾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시작은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믿음조차도 칼빈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³⁰⁾이라 하였

29) Vandrunen, D., *The Context of Natural Law: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Two Kingdoms*(JOURNAL OF CHURCH AND STATE, 2004), p. 516. 칼빈은 하나님의 법과 자연법 중 하나님의 법이 우선함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이해하였다.

30)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 8절, pp. 364-365. 하나님이 인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믿음이 가능해졌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의지 속에 있는 선과 의로움의 흔적조차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런 후차적인 믿음조차

다. 그러므로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모든 선행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자신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 받기를 소망하는 자로 여기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³¹⁾고 하였다. 이처럼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됨³²⁾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웃사랑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이 구속의 처음역사의 시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과 같이 그 삶의 과정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램과 간절할 열망 속에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을 통하여 소원을 두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빌 2:13)이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영적인 유익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역경을 이기고,³³⁾ 자신의 본성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인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복을 누림에 있다.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경험함으로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 나아가 자신

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31) Ibid., p. 366. 칼빈은 믿음으로 구속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자기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죄의 자취를 끊임없이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전적으로 부패한 과거의 본성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영의 부패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이쁨을 받는 영적 생활(시 51:10)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2) Ibid., pp. 370-371.

33) Ibid., pp. 216-218.

속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사랑을 통한 선행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의 실천대상이 변화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동일하게 이웃에게도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칼빈이 지적하는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측면에서 현재 교회가 하는 봉사나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복지실천을 통해 실천대상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초대되고 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이웃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통하여 실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역경과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나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 극복된다면, 자신과 이웃사랑의 실천대상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이 수반되는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여야³⁴⁾ 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웃사랑의 실천현장에 그러한 열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이웃사랑이 고통과 역경을 경감시키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사회복지의 영역과 역할은 과거에 비하여 보다 증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그 역할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과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적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

34) Ibid., p. 216. 칼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함에서 오는 복을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같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도인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도전에 의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회복 없이 참된 이웃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자기부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칼빈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기초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조명에 의한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참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자신을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본질적 가치관의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경험,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³⁵⁾ 함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연합된 거듭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은 자기 본위의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 자기부인의 삶을 사는 구체적 실천의 장이 된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좇아 사는 모든 실천은 자기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부인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자기부인을 구현하는 삶이다. 많은 경우에 이웃사랑의 실천 대상이 가난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의 상태’는 사랑의 실천

35)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대속의 은총을 고백하는 거듭남의 경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공포와 위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신 삶의 모범을 배운다(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1-5절, pp. 617-623).

자에게 존재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가치 절하는 결국 봉사와 실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기부인의 삶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 구속케 하신 마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존재³⁶⁾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미션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섬김과 그 열매, 그리고 섬기면서 경험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실천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은총을 힘입은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구속이 완성될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이웃사랑의 모든 전 과정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함에 의해 실천함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실천은 부정과 부패한 모양을 멀리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도우며, Burnout³⁷⁾을 벗어나 최상의 empowerment 속에서 고도의 서비스 질을 지속하도록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36) Ibid., 제3권 16장 1-4절, pp. 346-352.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그리스도의 현 존재 자체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웃사랑을 비롯한 선행을 장려하고 높이며, 선한 삶에 대한 열심을 독려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부르심의 목적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극하는 동인으로 유효적절한 것은 없을 것이다.

37) 반복되는 서비스로 인해 봉사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웃사랑과 사회복지 실천을 온전하게 하여,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든든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혁주의 성경관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기부인의 실천으로서 이웃사랑을 성찰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에 대한 자세와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이 일반 사회복지계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된 원인을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 실천의지의 약화로 이해하여 그리스도인에 의한 교회 사회복지 실천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천방법을 사례를 들어 예시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천사례 혹은 실천예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지만 향후 후속연구에서 교회가 주도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성경적 실천방안과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천모형이 다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환·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김미곤,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연구」 제5호, 한국도시연구소, 1999.
-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2.
- 김인숙·오선영·송수진·정필현, 「아동권리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회의 결과문서」, 보건복지부·Save The Children, 2004.
-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서울 : 학지사, 2003.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인간과 복지, 2000.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미신고 및 개인운영시설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http://www.129.go.kr/?m=20&s=2010&n=385>.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추출(2006. 5. 23.).
-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 통과와 장애인 인권”. 웹진 「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11869&article_idx=11990&sub_category=AA&pagenum=2에서 추출(2007. 3. 4.).
- 칼빈.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2000.
- Ablenews.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081004112143390000>에서 추출(2008. 10. 14.).
- Clark, A. D.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 KBS 추적 60분. “정부보조금 문제”. http://www.kbs.co.kr/1tv/sisa/chu60/vod/1577256_879.html에서 추출(2009. 3. 27.).
- Vandrunen, D. *The Context of Natural Law :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JOURNAL OF CHURCH AND STATE, 2004.